

민주, '李피습 의혹' 경찰 추궁…행안위 野 단독 소집에 與 불참

野 “현장 훼손해 증거인멸”, “피의자 신상 비공개는 사건 은폐한 것”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경찰 수뇌부를 상대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추궁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간사인 김용판 의원만 참석해 야당의 ‘일방 개최’를 비판한 뒤 자리를 떴다.

김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가 수사 책임자와 사건 관련자들을 강제로 불러 놓고 극좌파 유튜버들의 온갖 음모론에 대해 질의하느냐”라며 “경찰 길들이기식의 폭압적 선동정치 행태”라고 말했다.

역시 야당 단독으로 열렸던 지난 16일 전체회의에 여당과 동반 불참했던 윤희근 경찰청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이날 출석했다. 민주당은 피의자 단독 범행이라는 경찰 발표는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차단하기 위한 부실·왜곡·축소 수사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임호선 의원은 “공교롭게도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로 가는 헬기에 탄 그 시간에 경찰관들이 페트병으로 현장을 물청소했다”며 “범행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은 “20년 넘게



윤희근 경찰청장이 25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현장 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법관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형사 재판을 했다”며 “피해자 입장에선 경찰이 판단하고 내놓은 증거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낼 기회가 봉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상황 보고서에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를 ‘과도’라고 적시한 점, 목 부위

자상을 ‘열상이며 경상으로 추정’한 점, ‘출혈량이 적은 상태’라고 표현한 점 등도

야당의 공세 대상이었다.

권인숙 의원은 “어마어마한 오보를 전달해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다”며 “그래서 조작과 왜곡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이

야기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이해식 의원은 “현장을 물청소한 것은 증거를 인멸한 것이고,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사건을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거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커터칼로 습격한 피의자 신상은 다 공개됐다”며 “그런

데 이번 범인은 아예 칼을 같아서 죽이려고 찌른 것이다. 어떻게 신상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따졌다.

이에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는 신상 공개 관련 법률이 생기기 4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시점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테러’라고 규정했음에도 대테러센터가 테러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야당에서 나왔다.

민주당 소속인 김교룡 위원장은 “현재 수사 중이라 아직 테러방지법상 테러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의 발언에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도 판단을 안 하느냐. 대한민국 유력 지도자가 대낮에 피습 테러를 당했는데 대체 대테러센터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경찰이 피의사실공표를 들어 피의자 변명문을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피의자가

확신에 차서 언론에 자기 변명문을 참고하고 했다”며 “피의사실공표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게 앞뒤가 맞느냐”라고 비판했다.

/ 송원기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25일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강제로 퇴장당한 사건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의 과도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시작 직후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대통령 경호처 경호원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강 의원 강제 퇴장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라며 “대통령 경호원들의 이와 같은 과도한 대응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국회와 정부는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데도, 서로를 배타적으로 적대하

는 정치 문화가 극심해지고 있다”며 “국회도 정부에 대한 예의가 필요하고, 정부도 국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뭐가 과도하다는 것인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말씀을 하라”, “반성하라”, “실망스럽다” 등의 항의가 터져 나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그만하라” 등으로 외치며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김 의장은 “여야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는 피케팅이나 애유, 합성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절제와 관용의 정신을 되살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격 있는 정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김 의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특정 정당을 중심으로 소위 말해 자매 정당의 입장에서 국회의장이 나서서 발언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지키는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 강종현 기자

전국초등교사노조 “교권 보호위해

정서적 아동학대 남용 막아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25일 경남 김해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김해 모 선생님 교권회복 촉구 집회’를 열고 최근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한 동료 교사에 교권 보호와 연대를 선언했다.

이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등으로부터 딥페이크 합성사진 제작·유포 등 교권 침해를 당했다며 교권보호 위원회(이하 교보위)를 요청했는데, 해당 학생 학부모들이 자녀 명의로 자신을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초등교사노조는 이날 “용서하는 마음으로 교보위 요청을 철회한 것이 무

색하게 학생의 추가 교권 침해가 발각됐고, (다시) 교보위를 요청했더니 해당 교사는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며 반발했다.

노조는 “이번 김해 초등학교 교권침해 사례는 아동복지법 17조 5호인 정

서적 아동학대 금지조항이 학교 현장에서는 악용돼 교사 괴롭힘과 교육 방해용으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사의 교권을 온전히 보호하고 교권침해는 온당히 처분해 교육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 박소희 기자

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2심도 무죄

법원 “위법한 업무 지시 아냐…직권 행사로 볼 수 없다”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무마’ 이성윤 2심 선고 출석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에 부당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 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62·사법연수원 23기)이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성격을 보면 정식 지휘 체계를 통해 업무 지시를 하지 않고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된 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들어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할 수 없다”며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토록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정보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반대로 이규원 검사 등이 출국금지를 불법적으로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서려 했다. 그러자 당시 이 연구위원이 이현철 당시 안양지검장에게 “수사 필요성을”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였다.

/ 황순길 기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처방은?

에너지 절약

한국지역난방공사
KOREA DISTRICT HEATING CORP.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

2학기부터 원하는 초1 누구나 늘봄학교 머문다…27만여명 예상

유보통합에도 ‘속도’…3월 시범 지자체 3곳·모델학교 30곳 선정

원하는 초등학교 1학년은 저녁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올해 2학기 전국으로 확대된다.

유아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던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을 진행하면서 ‘모델학교’와 ‘시범지역’도 선정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을 통해 저출생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로 올해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먼저, 지난해 459개 학교에서 시범운영했던 늘봄학교를 올해 1학기 2천여곳으로 확대한다.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한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학생이 학교에서 다양한 돌봄·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김진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기준에는 (늘봄학교를 이용하려면) 맞벌이나 저소득층 등 ‘제한’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제한이 없어지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이달 1~8일,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예정 학생의 학부모 5만2천6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늘봄 학교 이용을 원한다는 응답자는 83.6%였다.



2023년 늘봄학교 교육기부 박람회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 약 34만명 선인 점을 고려하면 2학기에는 27만명 이상이 방과 후나 아침에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 2026년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적응이 필요한 초1 학생의 경우 35만원 수준이었던 유치원·어린이집 비·보육료 지원금을 올해 5세부터 40만원으로 늘린다. 또한 3월부터는 시범지역 3곳과 모델학교 30곳을 선정해 유보통합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이승현 교육부 유보통합주진단 기준조정과장은 “유치원의 경우 시범사업에 돌봄 모형을 도입해보려고 하는데 어린이집 총하고,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 학교 업무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만들어 전담 실무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0~5세 영유아의 교육·돌봄 강화를 위

한 유보통합도 계속 추진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던 중앙부처 관리체계를 6월까지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인력·예산 이관 방안 등을 수립해 지자체 보육 업무도 시·도 교육청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자 지금까지 월 35만원 수준이었던 유치원·어린이집 비·보육료 지원금을 올해 5세부터 40만원으로 늘린다. 또한 3월부터는 시범지역 3곳과 모델학교 30곳을 선정해 유보통합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교사들이 정신건강을 위해 학교급별로 사회정서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해 내년에 적용한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학생별 학습진단과 그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내년 1학기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영어·수학·정보 교과 디지털교과서 검

교육부는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하는 학교 문화를 정립하고자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먼저 지난해 통과된 ‘교권보호 5법’을 기반으로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지원을 계속 강화한다.

특히 다음 달에는 교권 침해 긴급 직통 전화 ‘1395’를 개통하고 학교 현장에 민원 응대 안내서도 보급한다.

학교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8개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 중인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3월부터 전체 교육지원청에 설치한다. 그간 교사들이 해온 학교폭력 조사는 3월부터 새로 도입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1천명 규모인 학교전담경찰관(SPO)도 100명 가량 늘린다.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학교급별로 사회정서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해 내년에 적용한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학생별 학습진단과 그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내년 1학기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영어·수학·정보 교과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와 국어(특수) 과목의 디지털교과서 개발은 올해 11월 완료한다.

교사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원(15만명)과 학교별 리더교사(1만1천500명) 등을 대상으로 연수도 추진한다.

/ 민도현 기자



항소심도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사용자…단체교섭 응해야”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니지만,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작업환경 개선이나 노동시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에 직접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24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며 “단체교섭이 근로계약관계 당사자와의 사이에서만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사용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발생하는 구체적 의무는 교섭에 성실히 응하는 것일 뿐 노조의 요구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까지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며 “단체교섭이 원고의 기업 활동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CJ대한통운이 집배점에

집배송 수수료, 상하차 비용 등을 지원하고 간선차량 수, 출발·도착시간, 당일배송 의무 여부 등 배송 관련 주요 요인에 대해 지배·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 의무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어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다. / 최재원 기자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2년으로 감형…조윤선은 1년2개월

대법원 파기환송후 4년만 선고…원심 징역 4년에서 절반으로 깎여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시를 받는 쪽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가 때문에, 그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전 실장 등이 문예기금 지원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예술영화 지원 및 도서 관련 지원에 특정인을 배제하게 한 혐의 등을 포괄일죄(하나의 범죄)로 본 부분도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또한 두 사람의 퇴임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다시 심리한 결과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구체적으로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송부하도록 한 행위 등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문예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 개입, 문예기금 지원심의 일부 부당 개입, 예술영화 지원사업 지원 배제, 일부 도서 관련 지원 배제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4년, 심리 시작 이후 3년 만에 나온 선고다.

파기환송심은 공소유지를 담당하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이른바 ‘가짜 수신업자 금품수수’ 사건에 휘말려 사임해 멈춰 섰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선고 뒤 “(재)상고해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짤막한 입장문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송원기 기자

‘양방향 문자’ 하나면 쓰던 사무실 번호로 고객과 소통을 더 편리하게!

더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원하신다면?

양방향 문자 하나면 쓰던 사무실 번호로 고객과 소통을 더 편리하게!

문자도 사진도 실시간으로 주고 받고, 받은 답변은 알아서 데이터로 정리까지!
제작자: kt enterprise | 문의처: 080-258-0303
수원특례시 포함 240여개 지자체 및 기업 100% (2022년 기준)

메시징DX
양방향 문자 서비스

'또래 살인' 정유정, 가족 접견때 "성의 보이려 억지 반성문..."

검찰, 항소심서 접견 녹취록 제출…“압색 전 방 치워놨어야” 원망도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가족 접견 녹취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24일 부산고법 2-3 형사부 심리로 열린 정유정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하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인명을 경시하는 범행을 자행한 데다 살인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한 뒤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고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며 “하지만 변명으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도 없어 사형 선고로 재범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근거로 그가 구치소에서 가족과 접견한 녹취록, 파일을 새 증거로 제출했다.

이 녹취록에는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반성문을



고개 숙인 정유정

적어야겠다’라거나 할아버지에게 ‘경찰 압수수색 전에 미리 방을 치워놨어야지’라며 원망하는 모습, 이번 범행이 사형,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임을 알고 감형 사유를 고민하는 정유정의 말이 담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유정은 1심 재판부에 1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다음 공판에서 이 녹취파일 중 일부분을 재생하는 증거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 증거자료 제출에 정유정 측 변호인은 “가족 간 사적인 대화가 있는 만큼 비공개로 증거조사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형량이 무겁다면 항소한 정유정은 그동안 지속했던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했다.

정유정 변호인은 “정신과 치료 자료를 제출했지만, 이번 사건에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유정 측은 피해자 측과 합의나 공탁금 제출도 검토 중이라는 의향을 내비쳤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8일에 열린다.

/ 송진영 기자



대전시 규탄 기자회견 여는 대전 시민사회단체

대전 시민단체, 개발사업 반대 활동가 고발한 대전시 규탄

대전시의 보문산 개발사업인 ‘보물산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지역 28개 시민사회단체가 24일 오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단체 활동가를 고발한 대전시를 규탄했다.

단체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해 8월 열린 보물산 프로젝트의 사업설명회장을 점거하고 시민 의견수렴 절차 이행을 요구한 활동가 2명을 고발했다. 활동가들은 업무 방해죄는 무혐의 처분, 퇴거불응죄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통보받았다.

단체는 “1인 시위와 기자회견, 의견서 전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 의견수

련 미이행 등 해당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 했지만 시는 응답하지 않았다”며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이런 잘못을 지적하고 의견을 전달하려 한 시민사회단체에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명백한 탄압”이라고 주장 했다. 이어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대전시는 2027년까지 3천억원을 들여 오월드에서 대사지구를 잇는 3.5km 길이의 케이블카와 마루지(엔드마크)형 전망 타워를 건립하는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보물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최형준 기자

옛 연인 살해 스토킹범

사형 구형한 검찰 “징역 25년 부당”

검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의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A(31·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하는 과정에서 접근금지 등 조치를 반복해서 위반했고, 출근 시간에 피해자 집 앞에 찾아가 계획적으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유족에게도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을 준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A씨의 범행이 보복살인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3)의 사례와 다르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현재까지 A씨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흉기 들고 지구대서 난동 부린 50대, 무술 14단 경찰이 제압



흉기 난동 50대 제압하는 박건규 경장

지구대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을 경찰이 침착하게 제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37·여)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두 손을 다쳤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1년 운동 동호회에서 B씨를 처음 만나 알게 된 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사귀다가 점차 접촉했고, 이별을 통보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흉기를 휘둘렀다. 자신의 목에도 흉기를 갖다 대

며 죽겠다고 위협했다.

다른 팀원들이 흥분한 A씨를 달랠며 대화를 시도하는 동안 박 건규 경장이 돌아서 A씨 뒤쪽으로 갔다.

침착하게 A씨의 겨드랑이 아래에 손을 넣어 제압했다. 30cm

에 달하는 톱 칼날이 박 경장의 얼굴을 향해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이어 동료들이 신속하게 흉기를 빼앗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씨를 폭행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건규 경장은 “경찰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면서 “술에 취해 지구대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것 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경장은 킥복싱, 격투기, 학기도, 주짓수 등 도합 14단을 보유한 유단자로 알려졌다.

/ 박지원 기자

전청조 “옥중에서 책 써서 피해보상 하고 싶어”



재벌 3세를 사칭 하며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28)씨가 옥중에서 책을 써서 받을 돈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씨의 이 같은 의사는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나왔다.

전씨 변호인은 전씨에게 “변호인과 접견하면서 ‘지금은 돈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기는 어렵지만 옥중에서 책을 쓴다면 아직 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혹시 도서가 판매되면 그 대금으로 형을 사는 중에라도 피해 보상을

하고 싶다’고 의사를 비친 적이 있었나”고 질문했다. 이에 전씨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씨의 경호팀장으로 일했던 이모(27)씨의 공범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씨는 전씨로부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해 전씨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 변호인은 이씨에게 “전씨의 노예처럼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서 모든 일을 했기에 전씨로부터 심리적 지배를 받았고 그래서 전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강했느냐”라고 물었고, 이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전씨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 오는 26일 경찰에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와 대질신문이 예정돼 있다고 언급했다.

/ 신민경 기자

Hello, 미래!

우주 여행을 떠나고 로봇 친구를 사귀고
더 큰 세상을 만나는 미래

미래는 지금, KDB산업은행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보고 싶다면 **KDB산업은행**

‘초반 2연승’ 역사 쓴 트럼프…대선 본선 고지 ‘눈앞’

“놀라운 속도로 경선판 정리”…바이든과 ‘리턴매치’ 조기 확정 유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초반 ‘2연승’을 하며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간 가운데, 공화당 경선 역사에서 혼직 대통령이 아닌데도 초반 2연승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미국 CNN 방송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2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주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 압승에 이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까지 더해 초반 두번의 대선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현시대의 첫번째 비현직 공화당원이 됐다”고 전했다.

CNN은 “트럼프는 놀라운 속도로 공화당 경선판을 거의 정리했다”며 “일련의 형사적 책임과 2021년 1월 6일에 벌어진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의 기억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비선거에서 전례 없는 속도로 당을 통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3일 치러진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



여유 있는 표즈로 승리 연설하는 트럼프

엔 대사를 꺾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리턴매치’ 조기 확정이 유력해졌다.

하지만 헤일리 후보는 트럼프 후보의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에서 배수진을 치고 싸움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CNN은 3년 전 1·6 의회 난입 사태로 탄

핵당한 후 워싱턴을 떠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2연승은 정치적 생존을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등으로 4차례에 걸쳐 91개 혐의로 형사기소된 상태여서 오는 11월 대선이 치러지기 전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CNN은 “트럼프의 승리는 그가 법적 문제를 활용해 그의 정치적 기반을 자신의 편으로 더욱 가깝게 만드는 정치적 박해 이야기를 쓰는 데 성공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또 “출구조사에서는 트럼프 지지자 10명 중 약 8명이 2020년 대선에서의 조 바이든 당선의 정당성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트럼프가 어떻게 ‘선거 부정론’을 정치적 재기의 엔진으로 성공적으로 활용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특한 정치적 위치에도 주목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는 전직 대통령들이 불명예스럽게 은퇴하는 운명에 처한 것과 달리 (대선에서) 패배한 후에도 공화당에 대한 지배력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혼직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진단했다.

/ 김희경 기자

알래스카는 러시아땅?

미국 “돌려받는 일 없을 것” 일축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세기 러시아 제국이 알래스카를 미국에 매각한 것을 불법으로 선언했다는 설이 온라인에서 확산하자 미국 정부가 “그는 알래스카를 결코 되찾지 못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뉴스위크에 따르면 베단트 패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전날 기자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 매각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명령에 서명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어이없다는 듯 “푸틴이 알래스카 매각이

불법이라는 뭔가에 서명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가 “미 정부

에 있는 모두를 대신해 말하자면, 푸틴이 알래스카를 돌려받을 일은 확실히 없다”고 밝히자 취재진 사이에서는 실소가 나왔다.

앞서 지난주 푸틴 대통령은 옛 러시아·소련의 부동산을 찾아내고 관련 권리 등

록과 법적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대통령실과 외교부에 지시하는 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명령의 표현이 모호해서 이번 조치의 범위와 의도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이 명령을 접한 러시아 내 극우 민족주의 블로거들은 한때 러시아가 지배했던 알래스카와 동유럽, 중앙아시아 등지의 영토를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 강민수 기자

이라크, 친이란 민병대 공습 美에 “용납 못할 주권침해”



친이란 이라크 민병대

이라크 총리실은 자국내 시아파 민병대(하시드 알사비)에 대한 미군의 폭격에 대해 “무모한 학전을 조장한다”고 24일(현지시간) 비판했다.

이라크 총리실은 이날 낸 성명에서 “이 같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는 수년간 이어온 협력을 약화하게 만들며 이라크의 주

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미국 국방부는 전날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 가운데 대표적 조직인 카타이브 헤즈 볼라(KH)와 이라크 내 시아파 민병대가 사용하는 이라크 내 시설 3곳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는 자국과 시리아의 미군 기지와 관련 시설을 로켓포 등을 동원해 공격해왔다. 특히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공격 빈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이라크 주둔 미군은 이에 대응해 시아파 민병대의 근거지를 폭격, 이들의 배후인 이란을 견제하고 있으나 주권 침해 논란과 함께 이라크 내 시아파 진영에서 반미 감정과 미군 철수 요구가 고조하고 있다.

무하마드 시아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는 지난 18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는 “국제연합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어졌다고 믿는다”며 이라크 주둔 미군과의 관계 재편을 주장하기도 했다.

알수다니 총리는 2022년 10월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 세력의 지지 속에 임명됐다.

/ 권승철 기자

‘中과 갈등’ 필리핀 마르코스

“대만은 중국 일부” 유화 신호

라이징더 대만 총통 당선인에 대한 축하 메시지로 중국과 갈등을 빚었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를 재확인하는 등 중국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다.

24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르코스 대통령은 전날 방송된 현지매체 GMA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는 이를 엄격하고 성실히 고수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고 덧붙였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평화를 원하며 충돌을 바라지 않는다”라고도 말했다.

남중국해 영유권에 이어 대만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중국을 향해 마르코스 대통령이 다소 유화적인 신호를 보낸 셈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 환영한다는 뜻을 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마르코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입장은 말에 “필리핀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대만은 중국의 성(省)이며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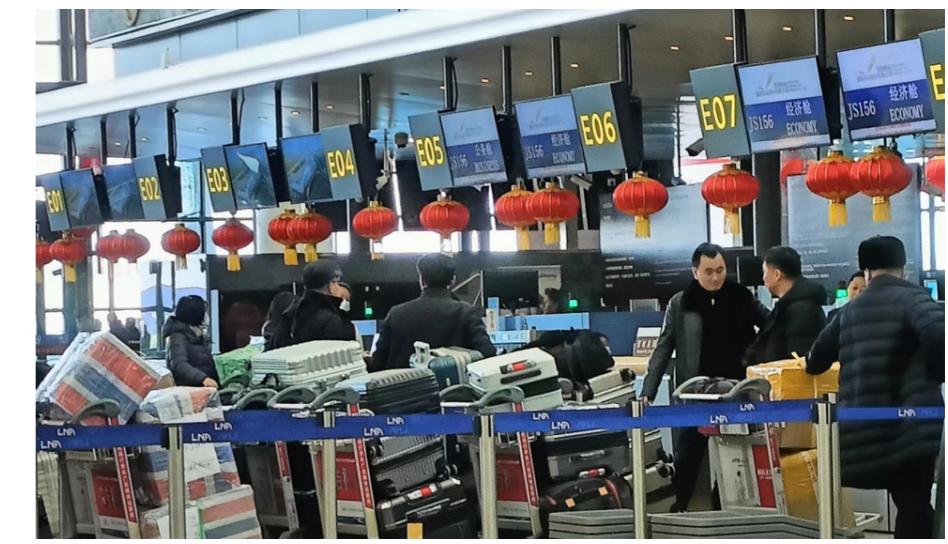
이어 “대만은 나눌 수 없는 중국 영토



의 일부분”이라며 “중국이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대세의 흐름이고 어떠한 대만 독립 행위도 모두 실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15일 엑스(X·엑 트위터)를 통해 “필리핀 국민을 대표해 라이징더 당선인이 대만의 다음 총통에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며 “앞으로 우리 국민을 위해 긴밀한 협력과 상호 이익 심화, 평화 조성, 번영 보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조한성 기자



선양공항에서 출국 수속 밟는 북한인들

北고려항공, 새해들어 평양-선양 첫 운항

北인력 10여명 中입국

60석 소형 항공기…작년

12월 운항 재개 후 세 번째

북한 고려항공이 새해 들어 처음으로

24일 평양~중국 선양 노선 여객기를 운항했다.

고려항공 JS155편 여객기는 이날 오전 11시 50분(중국 시간) 라오닝성 선양 타오셴공항에 도착한 뒤 세 시간여 후인 오후 2시 53분 평양으로 돌아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 노선 운항을 중단했다가 작년 12월 다시 운항에 나선 이래 세 번째이자 올해 들어 첫 번째 운항이었다. 이날 고려항공 여객기는 북한 인력 10여명을 태워 선양에 들어왔으며 평양으로 돌아갈 때는 북한 인력 50명 가량을 운송했다.

평양~선양 노선 운항 재개 이후 북한 인력이 여객기를 타고 선양에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선 두 차례 운항 때는 빈 비행기로 들어온 후 귀국하는 북한 인력만 운송했다.

한 소식통은 “코로나19 확산과 북중 국경 봉쇄로 입국이 막혔던 무역 종사자들이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운항한 고려항공 여객기는 60석 규모의 소형으로, 150석 규모였던 직전 두 차례 운항 여객기보다 작았다.

중국 단둥~신의주 간 버스 편이 수시로 운행하는 데다 항공료를 부담스러워하는 북한인들이 항공편 이용을 꺼려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려항공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북중 간 국경 봉쇄로 운항을 중단한 지 3년 11개월 만인 작년 12월 13일 평양~선양 노선을 다시 운항한 데 이어 같은 달 20일 두 번째 운항에 나섰다.

이날 운항은 두 번째 운항 이후 35일 만이다.

고려항공은 코로나19 이전에는 매주 두 차례 평양~선양 노선을 정기 운항했다.

/ 박현수 기자

**아름답고 깨끗한 지구를
다음 세대에게 공유합니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기술부터 다른 자원을 재탄생시키는 기술까지
LG의 클린테크는 다음 세대를 위한 더 깨끗한 지구를 만들어갑니다

공유하기
클린테크

미래,
같이

다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치 만들기,
LG가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금융

"희망부자들이 세상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부자이겠지만
더 나은 세상을 열어가는 사람들 역시
희망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꿀벌을 지키면서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
책을 통해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들

이런 희망들이 계속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KB금융그룹이 희망부자들을 응원합니다

Korea Better
KB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희망부자

그 첫번째 이야기 ☺



K-Bee 프로젝트

KB금융그룹은 밀원숲 조성 및 도시 양봉을 통해
꿀벌의 생태계 회복을 위한 K-Be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 작은도서관

KB금융그룹은 모든 아이들이 독서와 함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108곳의 지역에 KB작은도서관을
조성하였고 2023년까지 전국 8곳에 새로운 도서관을 조성해갑니다

 KB 금융그룹

OTT에 영화기금 부과금 검토…尹 재검토 지시에 협의 ‘난망’

영화기금 ‘고갈 위기’에 영화시장 영향력 커진 OTT도 부담 필요성 제기



부산국제영화제 찾은 OTT

정부가 넷플릭스·티빙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기업에 영화부과금을 부과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고갈 위기에 놓인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확충, 업계 협평성 개선 등을 위해 필요성이 제기된 사안이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담금 원점 재검토 지시로 개편 방향이 축소·폐지에만 맞춰지면서 각각의 부담금 사정을 고려한 생산적인 논의 자체가 제약받는 분위기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OTT 기업에 영화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영화발전기금 부담금은 영화·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상영권 입장권 가격에 포함해 징수하고 있다.

영화관 사업자와 관객으로부터 영화표 가격의 3%를 부담금으로 걷어 납부하는 구조다.

영화발전기금은 한국 영화 전반의 창작·제작·수출 등을 촉진하고 독립·예술영화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이번 정부의 검토 방침은 최근 기획재정부 기금부담금 운용평가단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평가단은 지난해 말 공개된 최종보고서에서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OTT 기업에 부과금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OTT 기업의 부담금 부과는 협평성 차원에서 이미 꾸준히 제기돼온 사안이다.

영화 시장에서 OTT 사업자의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은 영화관 사업자·관객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최근 영화 관객 감소로 영화발전기금이 고갈 위기에 놓이면서 OTT 기업에 부담금을 내도록 해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2022년 영화발전기금 부담금 징수액은 179억원으로 팬데믹 직전인 2019년(546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기업에 자국 영화 산업에 수익의 일부를 재투자할 것을 의무화하는 해외 사례도 OTT 부담금 부과의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에 따라 OTT 기업이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자국 내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에만 재원을 의존하는 구조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기금부담금 평가단이 지난해 말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존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처음으로 정부에 OTT 부담금 부과를 권고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정부도 평가단 권고에 따라 검토를 시작했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부담금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생산적인 논의 자체가 제약받고 있다.

/ 최규한 기자

국세청,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사업자에 세정 지원

대전지방국세청은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세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 사업자들의 부가 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과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기한이 3월 25일까지 일괄 연장된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피해 사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등이 신고·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세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박소희 기자



대한상의, 주한외국상의와 간담회

최태원, 주한 외국상의에 “한국 경제 일원으로 뭉칠 파트너”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웹라운지에서 주한 외국상의 대표들과 ‘2024 포린 캠벨 데이’ 간담회를 열었다.

행사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의 회장, 이구치 가즈히로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스테판 언스트 주한유럽상의 총장, 허가케어만 한독상의 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상의와 주한 외국상의는 함께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고 경제협력, 노동, 통상, 인증 분야에 걸친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태원 회장은 인사말에서 “외국기업의 투자는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산업 경쟁을 이끄는 새로운 혜력”이라며 “예를 들어 미국은 지난 10년간 558억 달러를 투자해 단일국가 기준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기업의 경영 활동과 제안은 우리 경제를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시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며 주한 외국기업에 감사를 표

했다.

특히 최 회장은 “올해로 140주년을 맞는 대한상의는 외국인 투자와 기업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여기 계신 기업인들도 한국 경제의 일원으로서 뭉칠 수 있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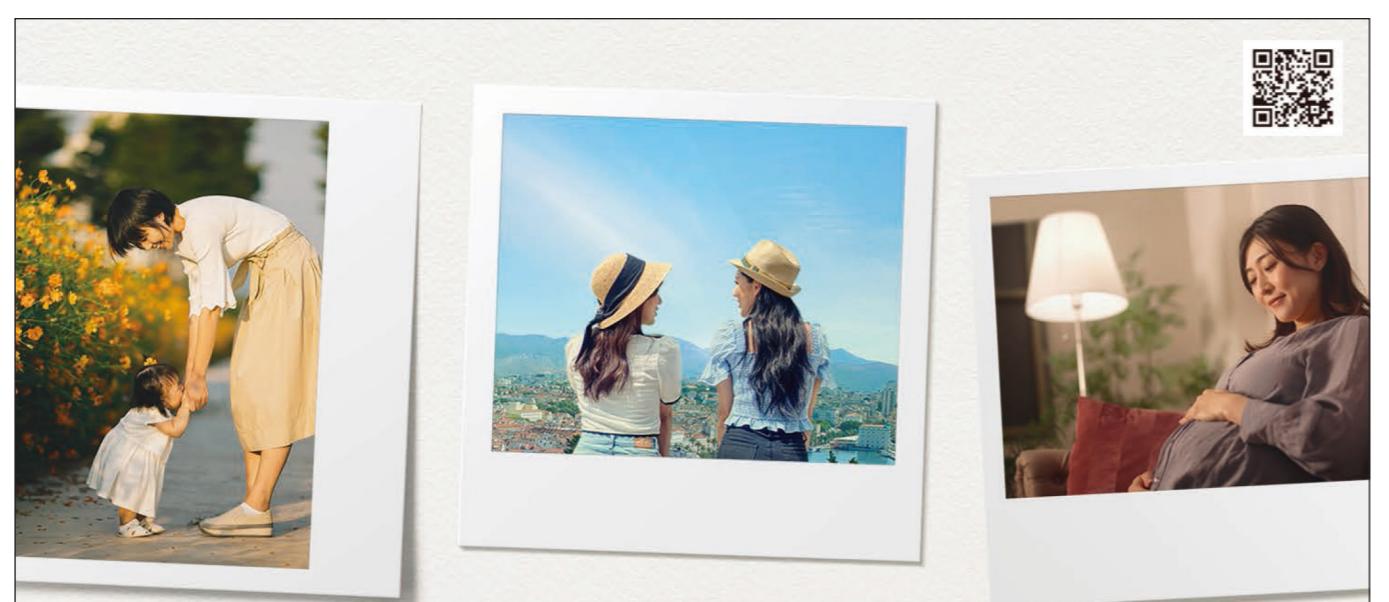
주한 외국상의 대표들은 외투기업의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소개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의 회장은 “한국은 아시아 제1의 지역본부로 발돋움할 여러 우수한 조건을 갖춘 만큼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글로벌 지역본부 유치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가케어만 한독상의 회장은 “풍력에너지 관련 법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제도를 선진화하고, 의약 등 신산업 분야 협력 기회를 늘려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스테판 언스트 주한유럽상의 총장은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등 분야에서 양측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업그레이드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 오순영 기자



마침내 보험, 여성의 라이프 속으로 (주)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여성이라는 멋진 삶이 더 건강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여성의 라이프도 세심하게 놀랄 수 있는 부분도 꼼꼼하게

여성의 모든 순간을 함께합니다
(주)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합니다. 기준에 제거된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구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해지 환급금(또는 민기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여자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범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이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기입자는 기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http://www.hwgeneralins.com>

손해보험협회 신설 제 02194 호 (2023.07.13)

쉽고 편하게 바로 상담하기

1833-7667

한화손해보험

“MZ 힙한 매장 총집결”…베일벗은 매머드 쇼핑몰 스타필드 수원

큐브형 별마당 도서관 눈길…“인터스텔라 배경 무대 연상”



스타필드 수원 별마당도서관을 내려다보는 LP실

24일 사전 오픈한 초대형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수원의 ‘스타’는 별마당도서관이다. 서울 스타필드 코엑스몰에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역할 하는 별마당도서관이 지역 스타필드로는 최초로 수원에 들어선 것이다.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도 컸다.

쇼핑몰에서 만난 김정민(35)씨는 “별마당도서관이 생겼다길래 아이와 함께 구경 왔다”고 말했다.

스타필드 수원의 별마당도서관은 코엑스몰의 그것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우선 면적은 610평(약 2천 16㎡)으로 코엑스몰(약 850평·2천 800㎡)보다 다소 작다. 장서 수도 약 6만권(키즈 포함)으로 7만 여권 수준인 코엑스몰보다 적다.

하지만 지상 4~7층 4개층의 가운데 공간을 티워 복층 구조인 코엑스몰보다 훨씬 더 개방적인 공간감을 구현했다.

많은 종을 할애한 덕에 서고의 높이도 22m로 코엑스몰(13m)보다 더 높다.

동근 곡선 모양의 코엑스몰 서고와 달리 큐브처럼 각진 서고 모양도 눈에 들어온다. 얼핏 2014년 개봉한 영화 ‘인터스텔라’의 무대가 된 멕시코의 바르콘셀로스 도서관을 연상시킨다.

이영훈 스타필드 수원점장은 “가족 친화적 쇼핑 공간이라는 그간의 이미지를 벗고 정확히 MZ세대를 겨냥한 첫 스타필드”라며 “이런 의미에서 ‘스타필드 2.0’ 시대의 개막”이라고 설명했다.

즐길 거리가 있는 체험형 매장을 곳곳

에 설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친환경 브랜드 러쉬의 쇼핑몰 최초로 스파(SPA) 공간을 갖춘 매장을 선보였고 패션 브랜드 앤디르 매장은 요가와 필라테스 등을 즐길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꾸며졌다.

배후에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가 많이 거주하는 점을 고려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지 않게 구성했다.

3층에는 1만 5천평의 장소를 갖춘 공공 도서관 ‘별마당 키즈’가 들어섰다. 같은 층의 째깍은 아이가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또 6층에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요리 체험 공간 ‘클래스록’이 마련됐다.

MZ세대를 포함한 젊은 층 사이에서 즐기면서 건강을 관리하는 ‘헬시 플레이저’(Healthy Pleasure) 트렌드에 맞게 스타필드 최초의 프리미엄 피트니스 클럽 ‘콩코드’를 선보인 것도 차별점이다.

실내 골프연습장, 수영장, 테니스장, 사우나 등을 갖춰 쇼핑과 운동, 휴식이 한 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신세계는 그룹의 유통 역량을 총결집해 이상적인 오프라인 쇼핑몰의 모델을 제시했다고 자평한다. 지난해 5월 정용진 부회장이 “우리는 물건을 파는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시간을 사는 경쟁을 하는 것”이라며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가장 잘 부합하는 복합쇼핑몰이라는 것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고객의 시간과 공간을 점유해 한 곳에서 먹고 즐기고 쇼핑하도록 하겠다는 게 스타필드 수원의 콘셉트”라고 말했다.

/ 홍문정 기자

모두에게 처음 The Kia EV9



The KIA logo is displayed in its signature white, angular font against a dark background. Below the logo, the slogan "Movement that inspires" is written in a large, white, sans-serif font.

구입문의 1588-1100 | 고객센터 080-200-2000 | www.kia.com

기아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고객님과의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EV9 에어/어스 2WD 19인치 7인승 : 복합 4.2km/kWh (도심 4.7km/kWh, 고속 3.6km/kWh) | 공차중량 2,425kg | 축전지 정격전압 552V / 180.9Ah | 1회 충전 복합 주행 거리 501km (도심 559km, 고속 429km) ◆EV9 에어/어스 2WD 19인치 6인승 : 복합 4.2km/kWh (도심 4.7km/kWh, 고속 3.6km/kWh) | 공차중량 2,405kg | 축전지 정격전압 552V / 180.9Ah | 1회 충전 복합 주행 거리 501km (도심 559km, 고속 429km) ◆EV9 에어/어스 2WD 20인치 6인승 : 복합 4.1km/kWh (도심 4.6km/kWh, 고속 3.5km/kWh) | 공차중량 2,430kg | 축전지 정격전압 552V / 180.9Ah | 1회 충전 복합 주행 거리 480km (도심 538km, 고속 408km) ◆EV9 에어/어스 2WD 20인치 7인승 : 복합 4.1km/kWh (도심 4.6km/kWh, 고속 3.5km/kWh) | 공차중량 2,410kg | 축전지 정격전압 552V / 180.9Ah | 1회 충전 복합 주행 거리 480km (도심 538km, 고속 408km) ◆EV9 에어/어스 4WD 19인치 7인승 : 복합 3.8km/kWh (도심 4.2km/kWh, 고속 3.4km/kWh) | 공차중량 2,550kg | 축전지 정격전압 552V / 180.9Ah | 1회 충전 복합 주행 거리 445km (도심 490km, 고속 389km) ◆EV9 에어/어스 4WD 19인치 6인승 : 복합 3.8km/kWh (도심 4.2km/kWh, 고속 3.3km/kWh) | 공차중량 2,570kg | 축전지 정격전압 552V / 180.9Ah | 1회 충전 복합 주행 거리 445km (도심 490km, 고속 389km) ◆EV9 에어/어스 4WD 21인치 7인승 : 복합 3.9km/kWh (도심 4.3km/kWh, 고속 3.4km/kWh) | 공차중량 2,565kg | 축전지 정격전압 552V / 180.9Ah | 1회 충전 복합 주행 거리 454km (도심 502km, 고속 395km) ◆EV9 에어/어스 4WD 21인치 6인승 : 복합 3.9km/kWh (도심 4.3km/kWh, 고속 3.4km/kWh) | 공차중량 2,585kg | 축전지 정격전압 552V / 180.9Ah | 1회 충전 복합 주행 거리 454km (도심 502km, 고속 395km) ◆EV9 GT-line 4WD 21인치 7인승 : 복합 3.8km/kWh (도심 4.1km/kWh, 고속 3.4km/kWh) | 공차중량 2,610kg | 축전지 정격전압 552V / 180.9Ah | 1회 충전 복합 주행 거리 443km (도심 483km, 고속 394km) ◆EV9 GT-line 4WD 21인치 6인승 : 복합 3.8km/kWh (도심 4.1km/kWh, 고속 3.4km/kWh) | 공차중량 2,615kg | 축전지 정격전압 552V / 180.9Ah | 1회 충전 복합 주행 거리 443km (도심 483km, 고속 394km) ※위 언비(주행거리)는 표준모드에 의한 수치로서 운전방법, 차량속도 탑승인원, 적재중량, 차량설정, 정비상태, 외기온도, 기상 조건 및 도로 상태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동절기 등 외기온도 하락 시 배터리 성능 저하로 실주행거리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상기 제원 및 사양은 성능 항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 이로운
S 세상을
G 그리다

BNK금융그룹은 ESG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다음 세상을 그려가겠습니다!



BNK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BNK캐피탈 BNK투자증권 BNK저축은행
BNK자산운용 BNK벤처투자 BNK신용정보 BNK시스템 BNK썸농구단

전주한옥마을 종합관광안내소 개소…음식·관광·교통정보 제공



전주한옥마을 종합관광안내소 협판식

전북 전주한옥마을에 지역 체류형 관광을 이끌 새로운 관광거점이 들어섰다.

전주시는 24일 한옥마을에서 우범기 시장과 시의원들,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종합관광안내소' 현관식을 했다.

전주종합관광안내소는 기린대로와 태조로가 만나는 한옥마을 초입(완산구 풍남동 3가 19-5)에 국비 32억4천만원 등 총 64억8천만원이 투입돼 연면적 461㎡에 지하 1층~지상 1층 규모로 건립됐다.

지하 1층에는 포토존과 파노라마월, 한옥마을 디오라마, 열린 화장실이 들어섰고 지상 1층은 관광안내소와 무인 관광터

미널 등을 갖췄다.

안내소는 음식·관광·교통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내부에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와 아날로그 모형을 활용해 한옥마을의 현재 모습과 역사가 구현됐다. 안내소는 오는 29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우범기 시장은 "전주종합관광안내소가 품격 높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전북권 연계 관광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국내 여행 활성화 공간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선 내년 상반기 개통



인천지하철 1호선을 서구 검단신도시로 연결하는 사업이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4일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지하 굴착 추진 현황과 안전 시설 등을 점검했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면서 겨울철 안전사고와 공정 관리에 힘쓰도록 당부했다.

검단 연장선은 인천 1호선 종점을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6.825km 연장하고 3개 정거장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7천277억원이며 2020년 착공해 현재 88%의 공정률을 기록 중이다.

검단 연장선이 내년 상반기 개통되면 인천 북부지역 교통수요를 효과적으로 켜리해 도로 혼잡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승준 기자

대구·광주시의회 "달빛철도 특별법

조속히 제정하라" 공동성명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24일 대구와 광주시의회가 함께 모여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대구시의원 33명 모두와 광주시의원 9명은 이날 대구시의회에서 공동성명서를 내고 "달빛철도는 영호남인의 오랜 숙원인 지역간 화합을 이루고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중심의 수직적 철도망에 동서간 수평적 철도망을 추가함으로써 국토균형 발전을 끌어낼 수 있는 묘연"이라며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기획재정부는 경제성과 예비타당

성 제도를 이유로 국민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며 "국회도 마찬가지다.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 중이다"라고 했다.

대구와 광주가 있는 철도 건설과 관련한 달빛철도 특별법은 현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했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상정이 미뤄지면서 연내 통과가 무산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법에 명시한 적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유지될 것인지 관심이 모인다.

/ 서정미 기자



울산시-삼성SDI, 투자 양해각서 체결

삼성SDI, 울산에 산단개발·배터리 생산공장 투자…1조원대 규모

울산시는 이차전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삼성SDI로부터 1조원대 규모의 산업단지 개발과 배터리 생산공장 관련 투자를 끌어냈다고 24일 밝혔다.

시와 삼성SDI는 이날 오후 시청 시장실에서 '산업단지 개발 및 배터리 관련 생산 공장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양해각서에 따라 삼성SDI는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내 3공구를 개발하고, 양극재와 배터리 관련 생산공장을 건설하게 된다. 또 생산시설 투자와 앞으로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채용 때 울산시민을 우선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

아울러 투자환경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다.

시는 이번 투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업현장지원단 소속 공무원을 파견, 삼성SDI와 지속해서 협력하고 신속한 인허가 등을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시는 이번 투자 유치로 배터리 완성품뿐만 아니라, 양극활물질 등 배터리 핵심 소재에 대한 산업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차전지 소재 생산부터 전기차 장착, 사용 후 재활용에 이르는 전주기 공급망을 갖춘 전기차 시장의 세계적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윤호 대표이사는 "첨단 생산 기술과 핵심 공정을 선제 적용해 최고의 안전성과 품질을 갖춘 제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유치를 위해 김 시장은 지난 해 5월 삼성SDI 울산사업장을 방문해 글로벌 이차전지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울산시 의지를 설명하는 등 회사 측에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삼성SDI에 전담 공무원을 파견해 이차전지 공장 신축 허가 절차를 지원, 부지 보상 등 장기 미해결 난제로 애초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공장 건축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하기도 했다.

/ 손혁수 기자

지하철

버스

따릉이

기후위기 대응까지

카드 한 장으로

월 65,000원에 대중교통 무제한!

기후동행카드

문의: 120 다산콜

SEoul MY SOUL

파주시, 귀농인에게 최대 3억원 농업창업자금 저리 융자

경기 파주시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인들의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자금을 1.5%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파주시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농협 등 3개 기관이 연계해 진행한다.

시는 귀농인을 선발하고, 농신보에서는 담보력이 미약한 귀농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농협은 신용보증서를 통해 선발된 귀농인들에게 대출해 준다.

만 65세 이하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농촌에 살면서 5년 이

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농업인), 귀농 희망자로 구분해 지원되며, 지원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그룹별로 다르다. 자세한 조건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 게재된 시행 지침을 보면 된다.

선정되면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자금은 최대 7천500만 원을 연 1.5%의 금리(5년 거치 후 10년 상환 조건)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쿠션 농업창업 안내 전화 상담실(☎1899-9097) 또는 농업정책과(☎031-940-2935)로 문의하면 된다.

/ 곽현주 기자

'열흘간의 5·18 항쟁' 시간순으로 담은 사진집 출판



사진으로 확인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현장 모습을 담은 사진집 '사진으로 확인된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진실' 출판보고회가 24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서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 복원 추진단이 발간한 사진집 출판보고회에는 5·18 단체 관계자·시민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송윤석 단장 인사말로 시작한 출판기념회는 추진단이 수집한 5·18 당시 사진 1만5천444장의 분석 방법·사진 출처·사진집 개요에 대한 소개 등이 이어졌다.

사진집에는 나경택·신복진·노먼 소프·힌츠페터 등 오월 항쟁 당시 현장에서 활

동했던 기자들에게 기증받거나 사용 허가를 받은 사진 655장이 담겼다.

사진 활용 기자·날짜·장소 등을 분석한 추진단은 5·18 전문가 검증을 거쳐 열흘간의 오월 항쟁 사진을 시간순으로 나열했다.

장제근 옛전남도청 복원 추진단 학예연구사는 "잘못 알려지거나 저작권 사용을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된 5·18 당시 사진을 정리했다"며 "사진집 발간으로 그 동안 왜곡됐던 사실을 바로잡고, 옛 전남도청에 남아있는 탄흔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오성환 기자

원주소방, '의료 불모지' 해외

의사·간호사에 구급 서비스 소개
강원 원주소방서는 24일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의료 응급 과정 연수를 받는 우간다, 인도네시아, 탄자니아 국적 해외 연수생을 초청해 119구급 서비스 체계를 소개했다.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임상 과정을 밟기 위해 한국에서 연수 중인 11명의 의사·간호사들은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응급의료 체계 운영 방법, 119 구급차·구급 장비, 구조장비 사용법 등을 소개받았다. 원주소방은 펠로우십 프로그램 임상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에서 보건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해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의 의료 시스템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한국에서 보건의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강우 서장은 "우리나라에서 소방기관의 전문 구급대원에 의한 초기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 전 119구급 서비스 운영 과정을 해외 의료진에게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 노종수 기자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지금이 제철이다



IBK기업은행
IRP

올해가 가기 전! 평생 수수료 0원



달콤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비대면 개설 시 수수료 평생 0원

i-ONE 뱅크, 인터넷 뱅킹으로 신규가입 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무료 *펀드 보수 등 별도 발생



최대 148만 5천원 세액공제

연간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6.5%,
148만 5천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고금리 퇴직연금 ELB 출시!

원리금 보장, 중도해지 시에도
원금손실 없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의필 제23-04295호(2023.11.23 ~ 2023.12.3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5462호(2023.11.17) [유효기간: 2023.12.31]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66-2566)로 문의 ※ 개인형IRP는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해 다른 보호 상품과는 별도로 5천만원까지(운용회사별 합산) 예금자보호 ※ 개인형IRP에서 운용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이 아님 ※ 투자전 설명 청취 및 상품설명서·약관 필독 ※ 원금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 개인형IRP 연금외 수령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과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 향후 변동 가능 <퇴직연금 파생결합사채(ELB) 유의사항> ※ 퇴직연금 파생결합사채(ELB)는 원금지급형으로, 투자자 성향은 저위험(안정추구형)으로 분류 ※ 퇴직연금 파생결합사채(ELB)는 개인형IRP 계좌에서 보유 중인 현금성 자산으로만 예약매수 가능 ※ 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이 아님 ※ 자산가격 변동, 발행회사 신용위험, 조기종결 및 중도상환 위험, 세제 및 법률상 위험 등에 따라 원금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 발행사 IBK 투자증권(AA, 2023.8.29, NICE 신용평가)의 신용위험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 ※ 청약의 권유는(예비·간이) 투자설명서에 따름 ※ 수익률은 조건 충족 시 최대 수익률에 불과, 수익률 달성 비보장, 투자 전 확인 ※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시 원금 손실 가능 ※ 원금 부분 지급이나 원금지급 상품의 경우 중도상환 시 최대 손실율 초과 가능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MLB 서울 시리즈, 3월 17일 다저스-키움전으로 본격 시작

다저스·샌디에이고, 야구대표팀·키움·LG와 총 4차례 연습 경기

오는 3월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정규시즌 개막전을 치르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연습경기 세부 일정이 공개됐다.

MLB 사무국과 손잡고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를 주관하는 OTT 업체 쿠팡플레이는 24일 “3월 20일과 21일 다저스와 샌디에이고의 공식 개막 2연전에 앞서서 17일과 18일 양일간 총 4번의 스페셜 게임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3월 17일 정오에는 다저스와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로 서울 시리즈의 막을 올린다.

이어 오후 7시에는 한국 야구대표팀 ‘팀 코리아’와 샌디에이고의 경기가 치러진다.

쿠팡플레이는 김혜성(키움), 노시환, 문동주(이상 한화 이글스), 원태인(삼성 라이온즈), 윤동희(롯데 자이언츠) 등 한국 야구대표팀에 포함될 선수 명단 일부를 공개했다.

KBO 사무국은 이에 맞춰 현재 공석인 대표팀 감독을



MLB 서울 시리즈 포스터

내달 초 선임하고 대표팀 구성 작업도 마칠 예정이다.

3월 18일 정오에는 샌디에이고와 2023년 KBO리그 챔피언 LG 트윈스가 맞붙고, 오후 7시에는 한국 야구대표

팀과 다저스의 경기로 모든 스페셜 게임 일정을 마감한다.

3월 20일과 21일 열리는 다저스와 샌디에이고의 MLB 개막 2연전은 모두 오후 7시 5분에 시작하고, 스페셜 게임을 포함한 모든 경기는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다.

입장권 예매는 오는 26일을 시작으로 총 6주간 매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된다.

첫 주에는 MLB 개막 1차전인 다저스-샌디에이고 전 예매가 열리고, 이후 순서대로 매주 한 경기씩 티켓 판매가 진행된다.

마지막 예매일인 3월 1일에는 MLB 개막 2차전인 샌디에이고-다저스전 매표가 진행된다.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2024 6경기 티켓은 쿠팡 플레이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https://www.coupanplay.com/promotion/mlb-seoul-series>)와 MLB 코리아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스북(@mlb.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백경윤 기자

LPGA 데뷔 임진희

“한국에서 받아보지 못한 신인상, 욕심난다”

오는 26일(한국시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데뷔하는 작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디승왕 임진희가 신인왕과 시즌 1승이라는 목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임진희는 26일부터 미국 플로리다주 브레이던턴의 브레이던턴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리는 LPGA 투어 드라이브온 챔피언십(총상금 175만달러)에 출전한다.

지난해 KLPGA 투어에서 다승 1위(4승), 상금랭킹 2위, 대상 포인트 2위에 오른 임진희는 LPGA 투어 월리파이시리즈 공동 17위로 올해 LPGA 투어 출전권을 땄다. 드라이브온 챔피언십은 임진희가 LPGA 투어 회원 신분으로 출전하는 첫 대회다.

임진희는 안강건설 골프단 운영 대행 사 넥스트 크리에이티브를 통해 보낸 데뷔전을 앞둔 소감에서 “(한국에서는) 신인상은 받아본 적이 없어서, 더 욕심이 난다”고 의욕을 보였다.

다만 임진희는 “뜻대로 되지 않는 게



골프이고, 목표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내 골프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랭킹 1위라고 밝혔던 임진희는 “세계랭킹 1위 역시 어려운 일이지만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가는 달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임진희는 데뷔전을 앞두고 “많은 감정이 든다”고 설레는 마음을 토로하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은 달라졌지만, 골프에만 집중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 신정민 기자

연패 끊은 최승우, 정찬성과 손잡고 4월 UFC 연승 도전

연패 탈출에 성공한 ‘스팅’ 최승우(31)가 ‘코리안 좀비’ 정찬성과 손잡고 함께 연승에 도전한다.

최승우는 오는 4월 7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UFC 에이팩스에서 열리는 ‘UFC 파이트 나이트: 베토리 vs 앤런’ 전에서 모르간 샤리에르(28·프랑스)와 페더급(65.8kg) 경기를 벌인다.

UFC에서 3연패에 빠졌던 최승우는 한국 종합격투기 전설 정찬성의 지도를 받아 지난해 8월 야르노 에렌스(29·네덜란드)전에서 승리한 바 있다.

당시 최승우는 “코치진과 같이 준비한 전략과 훈련이 내게 잘 맞았다”고 정찬성의 훈련 캠프인 ‘코리안좀비 MMA’에 공을 들렸다.

최승우는 신장 183cm에 리치 189cm로 페더급 내에서 가장 키가 크고 팔이 긴 편

에 속한다.

과거 거리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근거리 난타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갔던 최승우는 정찬성의 지도를 받은 뒤 원거리

에서 상대를 견제하다가 카운터로 받아치



는 스타일을 장착했다.

마침 이번 상대인 샤리에르는 신장 171cm에 리치 175cm로 최승우의 우세가 점쳐진다.

최승우는 “팬들이 있어서 지금의 최승우도 있다. 팬들의 SNSダイレクト 메시지(DM)도 하나하나 읽어보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멋진 경기로 보답하겠다”고 약속 했다.

/ 최준용 기자



프리킥 치는 백승호

백승호, 잉글랜드 2부 버밍엄 시티 입단

3년 만에 유럽 복귀

지난해 말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랜드)와 강하게 연결됐다.

선덜랜드 스카우트가 국내에서 백승호(26)가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버밍엄 시티를 지켜본 뒤 당시 선덜랜드 사령탑이었던 토니 모브레이(현 버밍엄 시티 감독)에게 보고했고, 입단 절차가 진행됐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표팀의 ‘와일드카드’로 뽑혀 황선홍 호의 금메달 획득에 힘을 보태며 병역 혜택을 받은 백승호는 훌가분한 마음으로 유럽 무대를 다시 두드렸고, 여러 구단 가운데 버밍엄 시티가 가장 적극적으로 영입에 나서 ‘차기 행선지’로 결정됐다.

축구계 관계자는 24일 “백승호가 버밍엄 시티 입단을 위해 다음 주초에 영국으로 출국해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라며 “계약 기간은 2년 6개월이다”라고 전했다.

버밍엄 시티와 계약을 앞둔 백승호는 지난 2021년 3월 다클슈타트(독일)를 떠나 K리그1 무대로 돌아온 이후 3년 만에 잉글랜드 무대에서 다시 ‘유럽 파’로 거듭나게 됐다.

백승호는 입단에 필요한 국내 서류 준비가 이번 주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다음주 초에 영국으로 출국해 입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1875년 창단해 149년 역사를 가진 버밍엄 시티는 이번 시즌 챔피언십에서 8승 8무 12패(승점 32)를 기록하며 24개 팀 가운데 20위로 밀려 있다.

/ 박정훈 기자

대한민국 자식재산은 기술경찰이 지킨다!

최근 5년
해외 기술유출 피해액 25조원
해외 기술유출 건수 93건

특허청의 심사관 출신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 수사관들이 해외 기술유출과
자식재산 침해 관련된 범죄를 직접 수사하여
국민의 자식재산을 보호합니다

자식재산침해 신고상담센터 1666-6464

폐허 누비는 아이유와 뷔…‘러브 윈스 올’ 뮤직비디오 공개

“힘들어도 함께 헤쳐 나가자는 메시지 담은 ‘팬송’”

아이유가 2년여만의 신곡 ‘러브 윈스 올’(Love Wins All) 뮤직비디오를 24일 0시 공개했다.

뮤직비디오는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유와 왼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뷔의 디스토피아 생존기를 다룬다.

영상은 허름한 행색의 아이유와 뷔, 그리고 두 사람을 쫓는 집요한 비행체와의 추격전으로 시작된다.

비행체를 피해 폐건물에 몸을 숨긴 두 사람은 낡은 캠코더를 손에 넣고, 곧 렌즈 속 행복한 세상을 발견한다. 캠코더 너머의 둘은 단정한 모습으로 차려진 음식을 먹고 파티를 즐긴다. 웨딩ドレス와 턱시도 차림으로 사진 찍고 노래도 한다.

그러나 그도 잠시, 다시 비행체가 등장하며 아이유와 뷔의 육체는 소멸한다.

‘러브 윈스 올’ 뮤직비디오는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로 주목받은 엄태화 감독이 연출을 맡아 기대를 모았다.

엄태화 감독은 지난 2018년 아이유 콘서트의 VCR 작업에 참여한 이후 5년 만에 아이유와 호흡을 맞췄다.

그는 “2년 동안 현장을 나가지 않던 중



아이유 '러브 윈스 올' 뮤직비디오

아이유의 연락을 받고 VCR 작업을 했던 것이 이후 제 작업에 동기부여가 됐다”며 “이번 역시 촬영장에 대한 즐거움을 일깨워주는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관이 이질적이고 추상적인 만큼 뮤직비디오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 역시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러브 윈스 올’은 ‘비밀’, ‘이름에게’, ‘아이와 나의 바다’ 등으로 이어지는 아이유의 대곡(大曲) 발라드 시리즈 가운데 하나다.

단순하고 클래식한 피아노 인트로로 시작해 후반부로 갈수록 절정을 치닫는 아이유의 음색이 두드러지는 곡이다.

화려한 심포니를 연상시키는 악기 구성으로 쉴 새 없이 고조되다 끝에는 다시 피아노 소리와 함께 여운을 남기는 기승 전결로 담겼다.

아이유는 뮤직비디오 공개에 앞서 팬들에게 전하는 소개 글을 통해 ‘러브 윈스 올’이 팬송이라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사랑하기를 방해하는 세상에서

끌까지 사랑하려 애쓰는 이들의 이야기”라며 “다섯 곡이 담긴 이 앨범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나의 팬에게 바치는 두 곡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러브 윈스’(러브 윈스 올)”라고 적었다.

김도현 대중음악평론가는 “이번 곡에는 아이유와 팬들이 평소 자주 썼던 표현들이 등장한다”며 “뮤직비디오는 다양한 장치를 통해 힘들지만 헤쳐 나가자는 메시지를 팬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그는 “대곡 밸라드를 예고했는데 ‘아이와 나의 바다’ 같은 곡은 아니고, 그렇다고 ‘밤편지’ 등 서정적 형태의 곡과는 결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이번 신곡은 기존 제목인 ‘러브 윈스’가 성소수자를 지지할 때 사용하는 문구로 알려져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아이유 측은 “곡 제목으로 인해 중요한 메시지가 흐려질 것을 우려하는 의견을 수용했다”며 제목을 ‘러브 윈스 올’로 변경했다.

신곡 음원은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 최지연 기자



신하균, 이정하, 진구, 조아람

신하균·이정하, tvN 새 드라마 ‘감사합니다’ 캐스팅

배우 신하균과 이정하가 대기업 감사실을 배경으로 하는 새 드라마 ‘감사합니다’에서 호흡을 맞춘다.

tvN은 ‘감사합니다’를 올해 방송하기로 확정하고 신하균과 이정하, 진구, 조아람을 캐스팅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합니다’는 JU건설 감사실을 배경으로 유능한 감사팀장과 젊은 신입사원이 협력해 회사에 만연한 비리를 밝혀내는 과정을 다룬 수사 드라마다.

신하균은 감사팀장 신차일을 연기한다.

/ 김채원 기자

신차일은 날카로운 판단력과 말솜씨, 협상 능력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냉철한 인물이다.

드라마 ‘무빙’에 초능력자로 출연해 이름을 알린 이정하는 정 많고 마음 따뜻한 감사실 신입사원 구한수로 변신한다.

진구는 JU건설 창업자의 3남이자 이회사 부사장인 황대웅 역할을 맡고, 조아람은 같은 회사 신입사원 윤서진 역할을 맡는다.

신하균은 감사팀장 신차일을 연기한다.

‘솔로지옥’ 시즌4 제작 확정…“더 재미있게 만들겠다”



넷플릭스는 연애 리얼리티 예능 ‘솔로지옥’의 네 번째 시즌 제작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솔로지옥’은 지옥도라는 이름의 외딴섬에 간 한 싱글 남녀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이다. 출연자들은 지옥도에서 각자 데 이트하고 싶은 상대를 서로의 마음이 맞으면 호화로운 데이트를 즐긴다.

시즌3은 공개 후 넷플릭스 세계 비영어권 시리즈물 시청 수(Views) 10위 이내에 5주 동안 이름을 올렸다. 프로농구선수 이관희는 시즌3에 출연하기 전 1만5천명이었던 소셜미디어(SNS) 팔로워가 출연 후 82만명으로 급증했다. 연출을 맡은 김재원 PD는 “팬들이 시즌3에 보내주신 격려와 비판에 귀 기울여 더욱 재미있는 시즌4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한국 시리즈가 네 번째 시즌까지 제작되는 것은 ‘솔로지옥’이 처음이다. 공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오순정 기자

세계연합신문

www.wunion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조영광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희진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광고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엠넷 4인조 서바이벌 ‘빌드업’…“퍼포먼스 대신 100% 보컬 중심”

이석훈·서은광·웬디 등 심사…“매번 감탄하면서 녹화 진행”



“요즘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위나 많은데, 그런데도 계속 보게 되는 건 실력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인 것 같아요.”

치열한 경쟁을 통해 4인조 보컬 보이그

룹을 완성하는 엠넷표 서바이벌 ‘빌드업’ : 보컬 보이그룹 서바이벌(이하 ‘빌드업’)이 오는 26일 처음 방송된다.

‘빌드업’에서 MC를 맡은 배우 이다희는

2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ENM 본사에서 진행된 제작발표회에서 “매번 감탄하면서 녹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력 있는 참가자들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빼놓지 않느냐”며 “빌드업’에는 ‘이런 친구들이 어디 숨어있었지’ 싶은 참가자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빌드업’에는 전현직 아이돌 멤버, 뮤지컬 배우, 아이돌 연습생, 대중 앞에 선 적 없는 일반인 등 총 40명이 참가하고, 가수 이석훈, 배호, 서은광, 솔라, 웬디, 김재환 등이 심사위원으로 출연한다.

이번에 첫 심사를 맡은 그룹 레드벨벳의 메인보컬 웬디는 “보컬 그룹 특성 상

/ 정소윤 기자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함께 약속하고 함께 지킵니다

월급 **2,060,740원**
(주40시간 근무시)

고용노동부



함께 크는 기술 함께 만드는 미래

SK하이닉스는 첨단 기술로
함께 성장하며 더 멀리 나아갑니다

협력사 인재채용 및 미래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프로그램 청년 Hy-Five/Hy-Po
반도체 전문 분석 기술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분석/측정지원센터
환경 이슈에 선제 대응하는 반도체 기업 연합 ECO Alliance